



독일 명품 가전 밀레가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09'에 참가한다고 1일 밀레코리아측이 밝혔다.

밀레는 올해 'IFA 2009'에서 '에코(ECO)'라는 주제 아래 전체 생활가전전시공간 10% 규모인 3000㎡의 전시공간을 활용해 소비자 및 딜러를 위한 2개의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청소기, 에너지소비를 40% 이상 줄인 에코라인 세탁기와 의류건조기, 8리터의 물로 14인분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 등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한 친환경 제품과 대형 세탁장비 등 상업용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빌트인 가전으로는 현재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화이트 색상 계열의 전기오븐 및 스팀오븐을 비롯해 쿡탑, 쿠키후드를 전시할 예정이며, 전문 유명 요리사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벤트 행사도 준비했다.

딜러 공간에서는 창립110주년을 기념해 출시된 유럽전용모델 세탁기 '갈라 그랜드 XL'(Gala GrandeXL)등 특별한 제품들을 소개한다.

한편 올해 49회째를 맞는 'IFA 2009'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와 함께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로, 지난해는 전 세계 63개국 1245개 가전전시업체가 참가했으며 약 21만 50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세계적인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강미 기자 kmlee@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